“화엄사 홍매화, ‘국민 홍매화’로 자리매김”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성료
대상에 ‘홍백의 만남’ 선정
1178점 접수…5월 5일 시상
“분열 치유하는 ‘꽃’ 성장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5회 화엄사 홍매화 ·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대상 수상작인 서재민 씨의 ‘홍백의 만남’.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개최한 ‘2025 제5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화엄사는 4월 25일 홈페이지와 BBS 불교방송을 통해 콘테스트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콘테스트는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1178점(전문작가 부문 493점, 휴대폰 카메라 부문 685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지난해 1141점, 2023년 897점에 이어 지속적으로 참가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작가 부문 대상(총무원장상)에는 서재민 씨의 ‘홍백의 만남’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교구장 스님상)은 김찬일 씨의 ‘매화향 가득한 밤’, 우수상(부주지 스님상)은 이기성 씨의 ‘인연, 어울림’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에서는 최우수상(교구장 스님상)에 최석민 씨의 ‘나도 홍매화다!’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부주지 스님상 한현주 씨(‘불심에 스민 홍매’), 총무국장 스님상 유진영 씨(‘홍매화의 아침, 그리고 나’), 교무국장 스님상 장태두 씨(‘다시 봄’), 포교국장 스님상 이정재 씨(‘우리도 소녀들 마음으로’), 특별상(리더스포럼 상임대표상) 김은희 씨(‘무제’)가 수상했다.

전영한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지리산 대화엄사의 상징성과 화엄매의 입체적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촬영을 도입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메타데이터(촬영정보)가 없는 작품, 원본을 과도하게 보정하거나 조작한 사진, 휴대폰 부문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출품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화엄사는 “홍매화는 코로나 시기 지친 마음을 위로했던 꽃으로, 특히 올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국민 홍매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궂은 날씨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홍매화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관람객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은 “올해 봄은 이상 저온, 늦은 폭설, 인근 산불 등으로 다사다난했지만, 33일간 총 22만 명이 홍매화를 관람하는 등 일일 평균 6,700명의 방문객이 화엄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 내 포토라인 무단 침범, 쓰레기 투기, 예불 시간 소음 등 일부 부적절한 관람 행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관람 문화와 문화유산 보호를 당부했다.

수상작들은 화엄사의 2025년 달력 및 홍보물, 구례군 홍보자료에 활용되며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된다. 시상식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년에는 1~5회 수상작 및 추천 작품을 모아 전시하고, 드론 촬영 부문을 신설해 콘테스트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고창 선운사 불교대학 수계법회

4월 27일 대웅보전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27일 대웅보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법회는 선운사 불교대학생과 신도회 임원, 선운사복지재단 관계자,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130명이 동참해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했다.

전계사 경우 스님은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조목조목 설하고 수계제자들에게 지계 의지를 확인했다. 수계제자들은 경우 스님에게 직접 연비를 받고 수계증과 금강저를 받으며 참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경우 스님은 “여러분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라며 “삶 속에서도 계를 지키며 정진하는 신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여 서각사, 참선·염불선원 개원

4월 26일 개원법회 봉행



부여 서각사(주지 불일 스님)는 4월 26일 복장 점안 및 참선·염불선원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에서 서각사는 참선과 염불이 함께하는 수행도량으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증명법사인 암도 스님은 법문에서 “염불과 참선은 수행의 두 바퀴로, 한쪽만으로는 완전한 수행이 될 수 없다”며 “이 도량은 염불과 참선이 함께하는 곳으로, 수행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많은 이들이 정진하고 깨달음을 이루길 바란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가치 되새기다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 무한 행복 여는 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26일 경내에서 ‘제65회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을 봉행했다.〈사진〉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대불사에 동참할 것을 발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무관 대종사, 성법 대종사를 비롯한 산중 원로스님과 대중스님, 김윤철 합천군수, 이은복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기관 단체장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념사에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나무 경전이 아니라 국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심과 인내,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새겨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오늘 우리가 다시 팔만대장경을 숨 쉬게 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공덕주가 되자”고 당부했다.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염불하면 몸과 마음, 가정과 사회, 국가에 무한한 행복의 향기가 넘칠 것”이라며 “장경보각은 항상 광명을 놓아 중생을 이롭게 하고,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대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세계 모든 중생이 정대불사에 동참하면 손가락 튕기는 사이 팔만 가지 문이 열려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은복 유산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팔만대장경은 뛰어난 인쇄 기술과 내구성을 갖춘 세계적 기록유산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신심이 오늘날에도 큰 귀감이 된다”며 “국가유산청 역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대요잡은 탑마당-독성각 옆길-연화문-장경판전 내부-학사대-청화당 옆길-해인도-보경당 앞으로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수행자 마지막 위한 ‘연화대’ 건립

4월 28일 상량식 봉행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스님들의 마지막 길을 장엄하게 모시기 위한 전통 다비장 ‘연화대’ 건립을 본격화했다.

화엄사는 4월 28일 경내 기존 다비장 부지에서 ‘화엄사 연화대’ 상량식을 봉행하고 스님들의 열반을 기리는 의식 공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날 상량된 연화대는 15평 규모의 주심포 형식 팔각 목조건물로 2024년 3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사진〉

화엄사 연화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원으로 건립되는 첫 전통 다비시설이다.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기존의 야외 소각식 다비와 달리 내화벽돌, 가스설비, 방염설비 등을 갖춰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다비 의식을 봉행할 수 있는 구조다. 통도사, 범어사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건립되는 전문 다비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연화대는 스님들이 생을 마무리하는 존엄한 공간”이라며 “수행자의 고귀한 가치를 담아 다비를 봉행하고 신도들과 함께 열반을 기리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칭과 관련해 “연화대는 완공 후 화엄사만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다시 명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 건립의 초석을 마련한 덕문 스님의 공로도 언급했다. 우석 스님은 “그간 전통 관례에 따라 다비를 해왔지만 덕문 스님의 노력으로 국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정식 다비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화엄사는 상량식에 앞서 역대 선대 조사를 위한 다례재와 부도 참배를 봉행하며 수행 전통과 불교 의례의 정통성을 되새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 삼존불 점안식

4월 26일 대법당서 봉행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선원장 혜수 스님)은 4월 26일 2층 대법당에서 삼존불 및 아미타후불탱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안식에는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을 비롯해 연화사 범일 스님, 원효암 지범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 35회 도반과 대중스님, 홍태용 김해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현진 스님은 법문에서 “지혜와 자성심으로 쌓은 도량은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재즈 선율로 물들다

천은사, 재즈 페스티벌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4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 앞마당에서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를 주제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페스티벌은 피아니스트 전용준, 베이시스트 김대호, 재즈보컬 문미향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재즈 거장 텔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의 대표곡들과 현대 재즈 음악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종단협 태화강연등축제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4월 25일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일원에서 ‘불기 2569년 태화강연등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울산불교연합회장 혜원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봉행위원장 정일 정사, 김두겸 울산시장,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혜원 스님은 봉축사에서 “연등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문화의 향연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태화강연등축제는 ‘야, 광명이다’라는 주제처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자, 불교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사암연합회 연등문화축제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는 4월 25일 군산 수송체육공원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사진〉

회장 도연 스님은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조국 평화통일이 속히 이뤄지기를 발원한다”며 “불교의 목적은 연기법을 성취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데 있으며, 전법과 포교가 불교의 생명인 만큼 사부대중이 적극 전법 활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좋은 일을 하면 그날이 좋은 날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그날이 불행한 날이 되므로, 날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불교사암연합회 봉축법요식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 만수사 주지)는 4월 26일 천안역 동부광장 특설무대에서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회장 도언 스님은 봉축사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며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 불자의 수행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연합회 원로의장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원로의원 인경 스님(천불사 주지)을 비롯해 연합회 스님들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문진석·이재관·이정문, 이병도 천안교육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봉축위원회 ‘꿈타는 연등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진성 스님)는 4월 26일 전라감영에서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를 주제로 소통과 화합의 연등문화 축제를 개최했다.〈사진〉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우리는 각자 본래의 자성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분별과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의 광명을 잃어버린다”며 “연등을 밝히는 이 순간, 자기 안의 등불을 다시 바라보고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은 봉축사에서 “무기가 아닌 등을 들고, 자비로 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사암연합회 봉축 문화축제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4월 25일 여수시청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4월 26일 이순신광장에서 ‘제2회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점등법회는 기념식과 장학금 전달,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민원실 앞으로 이동해 시청 앞 교차로에 설치된 봉축탑을 점등했다.

4월 26일 열린 문화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시작으로 1부 법요식과 2부 시민음악회가 이어지며 시민과 불자 등 3000여 명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